

장수사랑상품권 할인·전통시장 활성화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가는 '위드 코로나' 시대가 오면서 우리 사회 곳곳에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거리두기, 재택근무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지침으로 지역 경제 침체가 이어지면서 지역의 상권이 붕괴되고 있다. 그러나 장수군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카페, 식당들이 즐비해 영업하며 오히려 소상공인이 몰려들고 있어 눈길을 끈다. 장수군이 소상공인들에게 인기를 얻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편집자주



붐비는 장수시장

▲지역경제 활성화에 호자 역할, 장수사랑상품권

장수군의 지역화폐 '장수사랑상품권'이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난해부터 할인율을 도입한 후 판매액이 크게 늘어나 지역경제 활성화 활력소로 자리 잡았다.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막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되고 있는 '장수사랑상품권'이 지난해 4월 '장수군 장수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와 5월 '장수군 장수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공포와 함께 상품권 할인율(평균5% 특별할인110%)을 도입한 후 월평균 3배 증가했다.



장수사랑상품권

기관단체 판매액은 월평균 2150만 5000원(2019)에서 1억3100만원(2020)으로 6배, 개인 판매액은 월평균 1억359만8000원(2019)에서 16억4102만원으로 14배 이상 늘어 군민의 상품권 구매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제 '장수사랑상품권'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새로운 결제수단으로 자리매김해 지역 내 선순환 경제체제의 기틀을 마련하고 소비촉진 및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이끌고 있다.

▲장수시장 활성화 사업 및 상인대학을 통한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군은 장수시장 활성화 사업과 상인대학 등 소상공인의 경쟁력 및 전문성 강화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장수시장 활성화 사업은 쇠퇴하고 있는 장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장수시장만의 특색을 가진 거점공간을 조성하고, 장수시장 한미당 축제 등 문화·예술 공연 지원, 상인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장수시장민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올해 9월부터 8억3500만원을 투입해 시장 관리동을 리모델링, 장수시장 대표상품 개발, 상인대학운영, 장수시장 한미당 축제 등 활력 증진 거점 사업

장수 한미당 국거리

상품권, 하나 다득 상환가능합니다.

지난해부터 할인율 도입 상품권 판매액 크게 증가

특색 거점공간 조성 상인교육 등으로 장수시장에 '활력'

을 시행 중이다.군은 앞으로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장수시장에 이어 장계시장에 대해서도 창업지원, 상품 및 점포 육성·개발, 혁신상인 육성 등을 지원해 장수군 내 상권 활성화를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장영수 군수 "지역경제가 살아야 장수군이 산다!"

장영수 군수는 "민선7기 모토는 '현장소통 중심 부자 동네 실현'을 정하고, 장수군은 그동안 국가예산 확보를 바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뒤 부자 동네 만들기에 앞장서 왔다"며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지역 경제가 침체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 장수사랑 상품권, 장수시장 활성화 사업 등 상권 회복을 위해 추진한 사업들이 지역 내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이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장수군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베품이 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며, 관련 정책을 수립해 풍요로운 미래의 땅, 합천 장수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수=고관호기자



전통시장 활성화 캠페인



축! 전주매일 창간

새로운 에너지 세상

자연이 만든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 세상은 더 밝아지고 우리는 더 따뜻한 미래를 꿈꾸게 됩니다.

태양의 힘으로 움직이고 바람이 만든 에너지로 밝게 빛나는 세상

한국전력이 깨끗한 에너지로 새로운 에너지 세상을 열어가겠습니다



붐비는 시니어클럽 식당